

삼성전자, 광주에 'AI 벤처 스타트업' 키운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 개소식
헬스·소재 스타트업 5개사 입주
지원금 1억원·계열사 협력 기회
“지역경제 발전 촉진제 역할 기대”

삼성전자가 ‘국가 인공지능(AI)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 중인 광주에 ‘벤처 허브’를 만든다.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일 광주시 서구 삼성화재 상무사옥에서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송갑석·양향자 국회의원, 김원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이 참석했다.

C랩 아웃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지역 스타트업 발굴에서부터 기술 육성, 사업화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삼성전자의 협력 파트너로까지 성장시키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는 삼성전자가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을 선발 및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C랩 아웃사이드 대구’를 신설한 데 이어 광주 상무사옥에 신규 조성했다.

특히 C랩 아웃사이드 광주는 삼성전자가 지



삼성전자는 20일 광주시 서구 삼성화재 상무사옥에서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를 개소했다. /삼성전자 제공

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의 특징과 업체 선발, 육성, 사업 협력, 투자 유치 등 노하우를 그대로 이전해 지역 내 스타트업들을 지원, 육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매년 광주에서 별도의 공모전을 진행, 광주에 소재한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업체는 전문적으로 육성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업체별로 1대1 매칭돼 밀착, 맞춤 지원이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광주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모전에서 AI, 헬스케어, 소재부품 분야 등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했다. 업체 선정은 ‘AI 혁신거점’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AI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선발했다.

경량화 솔루션을 적용한 AI 모델 개발 기업 ‘클라카’, AI를 기반으로 한 생체정보 인증 및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스트페이스’, AI를 활용한 동물 생체 분석 및 가축 케어 플랫폼을 개

발하는 ‘인트플로우’, 얼굴 영상으로 건강·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 기업 ‘감성택’,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각 소재를 개발하는 ‘포엘’ 등이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최대 1억원의 사업지원금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업무공간. /삼성전자 제공

한편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C랩 아웃사이드 서울과 C랩 아웃사이드 광주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의 촉진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인해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 도시 실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C랩 아웃사이드 광주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이 많이 나와 광주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표 사장은 “스타트업의 혁신성, 역동성과 삼성의 노하우, 인프라,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내면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광주의 창업 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기준금리 인상... 1월 광주·전남 가계대출 ↑

중기 대출 증가... 대기업은 ↓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이른바 ‘고금리’ 영향 아래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3년 1월중 광주전남지역 여신동향’에 따르면 여신은 -1,945억원으로 -2,035억원을 기록했던 전월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예금은 행 여신은 332억원으로 전월 -2,138억원에서 증가 전환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전월 103억원에서 -2,277억원으로 감소 전환됐다. 특히 상호금융은 -445억에서 -1,379억원, 상호저축은행은 70억원에서 -126억원으로 감소폭이 증가했

다. 신용협동조합은 255억원에서 -153억원, 새마을금고는 232억원에서 -647억원으로 감소 전환됐다.

1월중 광주전남 수신은 -3,755억원으로 -3,063억원이었던 전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 증가 전환에 힘입어 -1조4,565억원을 기록했던 전월대비 감소폭이 축소된 -1조3,153억원을 기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9,399억원으로 1조 1,501억원을 기록했던 전월보다 줄었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 -3,387억원에서 1,48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의 대출 감소폭은 축소됐다. 가계대출은 -1,114억원을 기록했던 전월대비 -3,166억원으로 감소폭이 두배 이상 확대됐다. /오지현 기자

광주TP, 지역기업 IR 설명회 성료

광주테크노파크가 최근 지역 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했다.

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광주TP의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선발된 지역 투자유망기업 9개사와 수도권 소재 벤처캐피탈(VC) 13개사가 참가했으며, VC를 대상으로 실전 IR 피칭과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 받았다.

행사 참여 기업들은 광주테크노파크의 맞춤형 IR 컨설팅을 통해 IR 자료 작성방법 등을 코칭 받고, IR 자료제작비 지원을 통해 발표 자료의 완성도를 극대화했다. /홍승현 기자

기보·광주경제고용진흥원, 450억 기술보증

혁신기술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혁신 기술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진흥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의 30%를

기업당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기보는 기술 중소기업에 450억원 규모 기술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광주시 하남산단, 평동산단에 소재한 2,000여 개 기술 중소기업으로,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연합뉴스

한전,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협력

한국전력은 최근 한전아센터에서 GS건설(주), KENTECH(이하 켄텍)과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커뮤니티 EMS)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경숙 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과 김영신 GS건설 미래기술연구부장, 박진호

켄텍 부총장 간 서명 아래 체결됐다. 이들은 커뮤니티 EMS 개발 및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참여, 공동주택 데이터 프로파일링, 섹터커플링 및 K-BEMS 기술협력 정보통신기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지현 기자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함께 땀시다!**

일시 2023. 5. 20 (토) 집결 08:00
출발 08:30

장소 광주 승촌공원 운동장 (승촌보 내)

종목및 참가비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 2023년 4월 21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ID : jndnnews

주최 518 기념재단 전남매일